

세광 가족 모두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 졸업을 축하합니다.
 - 유치부: Irene Song
 - 유년주일학교: Esther Song
 - 중고등부: Simone Karibian, Janice Seong

예배안내

- 주일예배: 오후 12시 본당
- 교사 주일예배: 오전 10시 친교실
- 유년/중고등부: 오후 12시 1층 예배실(유년부) / 2층 예배실(중고등부)
- 금요기도회: 오후 8시 본당
- 중고등부 금요성경공부: 오후 8시 1층 예배실
- 토요 새벽기도: 오전 6시 본당
- 구역예배: 구역별

7월 안내: 하영미 집사

다음 주 기도: 민흥기 집사 (시편 24편)

이번 주 친교: 최경자 집사, 석동훈 형제

다음 주 친교: 황혜영 집사, 안정자 권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5:14)

뉴욕세광교회

Sekwa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New York

담임목사: **이민영** / 914.874.3606(C) / mylee4x@gmail.com

교육부 전도사: **Edwin Kim** / 유년부 간사: **안정자**

지휘자: **임대영** / 반주: **이영미**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www.nysekwang.org

교사에배

<오전10시> 인도자: **Edwin Kim** 전도사
 경배와 찬양(Worship & Praise) -----다함께
 대표기도(Invocation) -----안정자 권사
 봉헌찬송 ----- “좋은신 하나님” -----다함께
 봉헌기도(Offering & Prayer) -----인도자
 성경봉독(The Word of God) ----- **행(Acts) 12:12-18** -----인도자
 설교(Sermon) ----- “**누가 능히 하나님을**” ----- 이민영 목사
 주기도문(The Lord’s Prayer) -----다함께

주일예배

<오후12시> 인도자: **이민영** 목사
 * 입례찬송 (Opening Hymn) -----1장 (통1장) -----다함께
 * 경배와 찬양(Worship & Praise) -----다함께
 * 신앙고백(The Apostles’ Creed) -----다함께
 * 찬송(Hymn) ----- 31장 (통46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다함께
 대표기도(Invocation) ----- 시(Psalms) 48 ----- 나경수 집사
 찬양(Choir) -----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 세광 찬양대
 봉헌기도(Offering & Prayer) -----인도자
 성경봉독(The Word of God) ----- **행(Acts) 11:12-18** -----인도자
 인사 및 광고(Greetings & Announcements) -----인도자
 설교(Sermon) ----- “**누가 능히 하나님을**” ----- 이민영 목사
 * 찬송(Hymn) ----- 321장 (통35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다함께
 * 축도(Benediction) ----- 이민영 목사

*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감동이 있는 예배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성도 개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성장, 성령충만을 위하여

새 가족이 쉽고 편하게 적응하도록

구역장들 (목회자의 마음, 성령충만, 삶의 균형, 헌신)

구역예배를 통해 교제가 풍성해 지도록

성경공부, 성경통독, QT, 등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들을 위하여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순돈호(슬로바키아), 최정희(도미니카),

장영호(GP 본부), 이정석(WEC 본부), 김승훈(베트남), 정명섭(모잠비크)

CSO(미자립교회 지원사역), 이성주 (필리핀), 최문재 (혼두라스)

지난 주 주일 설교 요약

복음: 하나님의 능력 (사도행전(Acts) 8:26-40)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퍼진 것은 사도들의 헌신과 교회의 사역 때문이었지만 그 근본에 그들이 전한 복음이 능력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큰 도시 사마리아에서 능력의 사역을 하던 빌립이 아무도 없는 광야로 보내심을 받아 이방 사람 하나를 만나 복음을 전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살펴보려 합니다.

복음은 실제로 일어난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는 소식이기 때문에 능력입니다. 복음은 아름다운 미담도, 좋은 의견도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을 전하는 뉴스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소식입니다. 약속대로 예수께서 오셔서 구주가 되셨습니다(35절).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믿어야 기쁩니다. 구원이 필요한 노예였고, 용서가 필요한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예수의 대속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육신으로는 그것을 인정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 감추고 변명하거나, 스스로 거룩해지려 반성하고 뉘우칠 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죄인인 것을 인정할 사람은 없습니다. 두려워서도 못하고, 죄인이라서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그 심판을 받으셨다는 겁니다(33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죄에 대한 진노가 다 쏟아진 의입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자를 의롭다 해주시는 의입니다. 그 십자가를 대할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회개의 능력과 온전한 용서의 기쁨을 누립니다. 아무도 기쁘게 받을 수 없는 심판과 긍휼의 도리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로 인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다.

복음은 소식이라서 들어야 합니다. 듣지 못한 소식은 현실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인으로 살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것처럼, 주님께선 교회를 복음을 전할 자들로 보내십니다. 그 보내심에 빌립이 순종했더니(26절) 복음의 능력이 내시를 구원했습니다.

높은 산을 넘어, 목소리를 높여, 마음에 닿도록 전하는 전도자 되기를 위해,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닿도록 전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일 뿐 아니라 삶을 온전케 하는 능력입니다. 이 내시는 재산과 지위와 명성과 학식과 경건함이 특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주지 못하던 기쁨을, 복음을 듣고 얻었습니다(39절). 그 어떤 것 보다도 복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존재라는 것이,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신 것이 이 사람의 인생을 가치있게 했고 기쁘게 했습니다.

그 기쁨과 감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고귀함을 다시 찾는 감격이 우리를 존귀하게 살게 합니다. 함부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부와 명예와 성공과 칭찬에서 인생의 가치와 보람을 찾지 않습니다. 진짜를 맛보았으니 가짜가 눈에 들어올 리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없는 가난과 어려움 중에도 실망치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룩하고 정직하게, 고귀하게 삽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로 삽니다. 복음을 알고 기뻐하는 것이 그 능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육신을 따라 보지 않고 새 피조물로 귀하게 여깁니다. 내 판단과 유익에 따라서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선포된 기준대로,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으로, 또는 화목하게 되어야 할 사람으로 봅니다.

교회는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복음을 선포할 때, 믿을 때, 살아낼 때, 서로 사랑할 때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룹니다. 교회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보내심을 받아 이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대담하고 정성을 기울여 예수를 전합니다.